

이긴자 일대기 [16]

하나님의 생사가 걸린 문제

아브라함이 첫째 천사로 첫 번째 인을 때는 자요,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는 야곱이며 네 번째는 야곱의 장자 단입니다. 이렇게 땅의 4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하늘의 3수가 되는 영모님과 해와 이긴자 그리고 아담 이긴자로 채워짐으로써, 하늘의 3수와 땅의 4수가 합해져 7수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 일곱째 천사로 일곱째 인을 때는 구세주가 됩니다. 하늘의 3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라고 했고 이어서 54절에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했습니다.

스물두 살의 일곱째 천사가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성경을 한층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성경 속에 인봉된 하나님 말씀의 뚜껑을 열어 속속히 풀어내는 실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성경 이해와 풀이는 제삼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싸우는 연단과정에서 '나라는 주체 의식인 마귀 욕을 부수고 나온 성령으로 인하여 성경속의 천국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덴동산 회복

일곱째 천사는, 천국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이며 이루어지는 것임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천국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원래부터 저 하늘꼭대기에 천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천국을 향해서 찾아 올라간다고 말할 때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라는 마귀 영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천국의 실제인 에덴동산은 마귀의 동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한테 점령당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무너진 사실을 아는 자가 나타났으니, 그는 아담 이후 6천년 만에 단지와 혈통에서 출현한 일곱째 천사입니다. 이 일곱째 천사에 의해서 무너진 에덴동산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성경말씀 속에 인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에 의해서 에덴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일곱째 천사의 마음속에 천국을 건설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

지는 것을 가지고 에덴동산을 회복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를 비롯한 모든 인간 개개인 자체의 주인은 몸이 아니라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의식'이 이리 가고 싶으면 몸도 따라서 이리 가게 되고 '나라는 의식'이 저리 가고 싶으면 몸도 따라서 저리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마음자리에는 하나님의 마음 곧 천당으로 존재했는데,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그 천당의 마음자리는 선악과라는 마귀 영한테 점령당하여 마귀의 집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마귀 영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마귀 종노릇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영이 점령하여 들어올 때, 한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전멸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은 양심으로 생명으로 남게 되었는데, 그것도 마귀의 포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마귀가 정욕을 부릴 적마다 소진되는 생명으로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포로 하나님이 오늘날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지만, 인간 마음의 주인으로 행세를 하고 있는 '나라는 주체의식'인 마귀 영은 하나님을 포로로 잡고 마귀의 영옥(靈獄)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욕에 갇힌 하나님이 곧 인간

아담 이후 6천년 만에 '나라는 주체 의식'이라는 마귀 욕에 갇힌 일곱째 천사의 양심(하나님의 영)은, '인간이 마

귀와 하나님의 병존체로서 사망의 영에게 사로잡힌 상태의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어슴푸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일곱째 천사를 신학대학에 계속해서 다니게 해서는 다시 마귀의 수렁에 빠져 '마귀 욕에 갇힌 하나님'이 곧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학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나라는 주체의식'인 마귀 영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한 학문이기 때문에 마귀의 학문인 인학(人學)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학문인 신학(神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곱째 천사의 양심(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마귀 영을 없앨 수 있는 지혜와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인 사망을 삼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프로그램에 의해 아담 이후 6천년 이 차면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시한폭탄장치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사(生死)가 걸린 중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천사의 신학공부를 제지할 요량으로 군대로 소환하는 영장발부라는 강경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신학대학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스물세 살의 나이로 입대하게 된 것입니다.

영모님과 첫 만남 이후 십여 년이 지난 두 번째 만남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십년 전에 북을 둘러매고 남산 주변에서 전도하시던 다섯째 천사 박태선님(영모님)이 감리교회 중고등반 학생들을 이끌고 나온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에게 북을 맡기며 대신 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남대문교회 신자들은 "박집사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북을 양보하지 않는데, 이 학생한테 주다니 정말 처음 있는 일이야!" 하며 저마다 신기하게 여기며 한마디씩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산에서 두 천사의 첫 만남 이후로 십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이 육군중위 계급장을 달고 논산 훈련소로 발령을 받고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몇 해 전부터 폐에 구멍이 뽕 뚫려 있는 폐병 3기였습니다. 수년 간 낮에는 장교로서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밤에는 야간학교를 열어 625전쟁으로 공부할 기회를 잃은 사병들과 민간인 학생들을 밤11시까지 가르치면서 분필가루만 먹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귀 수술과 안찰을 받고 폐병이 완치되다

그러던 어느 날 일곱째 천사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다섯째 천사의 형상을 뒤집어 쓴 채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사기로 빨간 피를 귀에 넣으면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시한폭탄장치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막이었습니 다. 하나님께서 고무풍선과 같은 고막을 꺼내내고 말씀하시기를, "고막이 이렇게 찢어졌으니 들릴게 뭐야, 안 들리지." 하시면서 친히 바늘로 꿰매시고는 다시 귓속에 넣으니 그렇게 크게 보였던 고막이 귀에 속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찰을 해줄 테니 누워라"고 하시더니 복부에서 안찰을 해주시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 팔뚝 뒤편이었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의 안찰로 배가 너무 아파서 꿈을 깰 겁니다. 눈을 떠 보니가 아무도 없고 시계를 봤더니 새벽 4시였습니다. 625전쟁 당시 폭탄터지는 굉음에 한쪽 고막이 상하여 잘 들리지 않아 그 후부터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작은 소리를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여 되묻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시계바늘이 짹짹 짹짹 돌아가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시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꿈에 귀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귀가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나...' 하고 생각하며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갔는데, 이날도 일어나서 평소와 같이 군복으로 같이입었습니다. 혁대를 꼭 졸라매는 습관이 있어서 그대로 하니가 배에 통증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아프지?'하고 풀고 보니, 배에 손자국이 세 군데나 있어 '야! 신기하다. 꿈에 복부 안찰을 받았는데 실제로 시커먼 자국이 나 있구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바람을 쏘이면서 예배 보러가는 데 평소와 달리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고 상쾌하고 호흡도 편안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구 군인관에게 부탁하여 가슴 사진을 찍어보니 뚫렸던 폐가 아물어 완전히 놀라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폐결핵이 갑자기 낫게 되었는지 묻기에, 꿈에 박태선 장교로부터 안찰을 받고 난 후 좋아졌다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꿈 안찰을 받은 그날 새벽예배를 보고 돌아와서 군부대에 출근하여 논산 훈련소 독도법 교관으로서 하루에 300여 명씩 교육을 시키고 귀가할 때였습니다. 논산 삼거리로 지날 즈음에 근처 전도관에서 손뼉을 치고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은혜롭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전도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꿈꾼 것을 이야기하니, 교인들이 소사 신앙공동체(신앙촌)로 가서 다섯째 천사를 한번 만나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사 감람산 동편 기슭에 신자들만 모여 자급자족하는 신앙공동체가

을 조성하고자 한창 공사 중이었습니다.

'소사'라는 말에 귀가 솔깃

일곱째 천사는 '소사'라는 말에 귀가 솔깃하였습니다. 그가 일곱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흰돌 하나를 받았는데, 그 흰돌 위에 '素砂'라는 문양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문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서당에서 한문공부를 하면서 '소사(素砂)'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랐을 때에는 부친에 소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번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인연이 닿아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섯째 천사를 만나러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배 안찰로 병고침을 받은 이유보다 소사에서 역사한다는 것에 더 관심이 끌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지내다가 막상 토요일 아침이 되니, 금요일까지 말했던 배가 아파오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날은 아무 데도 못하고 그냥 보내고 말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주일이 다 가고 토요일이 되니 또 배가 몹시 아파오는 것이었습니다.

말뚝하던 배가 토요일만 되면 아파오다니, 이젠 필시 다섯째 천사 박태선 장모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장난임에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마귀를 속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단에 계속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성경 속의 진짜 하나님 말씀 18탄 The True Word of God in the Bible - Part 18

마귀의 목적은 무엇인가? What is the aim of Satan?

마귀의 목적은 영생의 길을 파괴하고 모든 인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The aim of Satan is to destroy the way to immortality and kill all humans.

6천년 전에 마귀는 에덴동산을 차지했고 아담과 이브는 마귀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Six thousand years ago, Satan occupied the Garden of Eden. Adam and Eve was ensnared by the spirit of Satan.

그들의 마음과 몸은 마귀의 마음과 몸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Their hearts and bodies hanged into those of Satan.

그들은 죽음의 신인 마귀의 영에 의해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They were killed over the long run by the spirit of death, Satan.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피를 통해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들을 구하심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But, the life of God continued to descend to their posterity through blood. Satan has failed to destroy the life of God totally because God saved Noah's family. But Satan tried again and came as the anti-Christ.

이후 마귀는 사람들에게 인간은 육신이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Afterwards, Satan taught people that humans could enter the kingdom of Heaven after the death of the flesh.

마귀의 목적은 모든 인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The aim of Satan is to kill all humans.*

'그래 이제 소사에 가지 않을 거야!' 하고 집집 꼭 그렇게 하리라는 결심도 하는 동시에 아예 소사에 대한 생각조차 지운 채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 토요일은 배가 아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옳지, 됐다! 마귀가 속아 넘어갔구나!'하고 얼른 논산역으로 가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영등포역까지 타고 와서 그 다음에 시외버스를 같이 타고 소사로 향했습니다.

구레나룻 수염을 한테다 나이가 지긋한 안내원이 소사마을을 방문한 일곱째 천사에게 점잖게 묻기를, "장교님은 무슨 일로 여기 왔습니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박 장모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 지금은 출타중이라 안게시고 조금 있으면 곧 돌아오니까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안찰해준 것을 아시는 박 장모님

잠시 후 박 장모가 들어오는데 신도들이 대하는 태도가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하는 것보다 더해 보이는 것



영모님의 젊은 시절 모습

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일곱째 천사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아!'하고 발길을 돌리려고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 이왕 온 길에 만나보거나 하고 가지'하고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데, 안내원이 박 장모에게 "저기 장교님이 장모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장교님은 어떻게 오셨어?"하고 박 장모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물

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막상 질문을 받으니까 대답이 당황하여 딱히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무심결에, "안찰을 좀 받으려 왔습니다." 하고 답변하였습니다.

"안찰은 이미 해 줬는데 뭘 또 안찰을 받아요?"

"저는 장모님께 안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 장모는 기가 차다는 듯이, "어, 장교님이... 신학교까지 나오신 분이 이제 거짓말을 하시네. 내가 지난 번에 안찰을 해주고 귀 수술까지 해 줬

잖아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이내 얼굴이 빨개졌고 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 안찰해 준 것을 알고 말씀하니, 박 장모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안찰해준 것은 그렇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신학대학교를 나온 것까지 알고 계시냐'라는 생각에 이르자, 정말 무섭고 떨려 더 이상 인간 대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일곱째 천사가 품고 있을 때, 박 장모가 말하기를, "이왕에 오셨으니까, 장교님이시니까 또 해줘야지. 굉장하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박 장모가 다섯째 천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섯째 천사의 안찰(安察)으로 일곱째 천사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인 박 장모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일곱째 천사를 낚는 영적 동정녀의 역할을 하게끔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